

NOVEMBER 2023.
No. 230

INSS

전략보고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대응 특징

김보미 연구위원
bomi@inss.re.kr

- I. 문제제기
- II.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특징
- III. 북한의 대응 강화 의도와 시사점
- IV. 향후 전망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대응 특징

I. 문제제기

II.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특징

1. 연합훈련 기간 비례적 군사 대응의 강화
2. 군사도발의 “훈련”화
3. 김정은의 전면적 등장과 위기의식 조장

III. 북한의 대응 강화 의도와 시사점

1. 핵무력 정책법의 실전 적용
2. 경제적 부담 감안, 저비용 고효율 훈련으로의 전환
3. 한미연합훈련의 쟁점화 및 군사협력 가속화

IV. 향후 전망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대응 특징

저자 | 김보미

국문 초록

2022년 9월부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훈련”이라는 명칭하에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오로지 연합훈련 기간에 벌인 군사도발에 한정하여 훈련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북한이 벌이는 무력행동은 단순 무기 시험발사부터 목표대상을 지정하고 밀도 있게 진행되는 훈련까지 모두 포괄한다. 이처럼 북한이 지난해 9월부터 고강도 맞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의 군사지휘 능력을 부각하는 것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의 발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훈련 기간 맞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호전성과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법령이 지향하는 공세적 핵태세를 현실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실전능력을 배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연기를 노리며 미국의 전략자산의 동해 진입 방해 및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공세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력에 안주하기 어려울 것이며 한미에 단호하고 강력한 모습을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합훈련 기간에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 및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노력, NCG 운영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독자적 노력과 한미공조체계의 강화로 북한의 공세적 의지 관철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전술핵무기, 한미연합훈련, 핵무력 정책법

I 문제제기

- 2023년은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3년 차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최우선 5대 과업”의 성과를 서서히 도출해 나가는 시기
 - 2022년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다종화하는 한편, IRBM, ICBM, 극초음속무기 등 김정은 집권 이래 유례없이 많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
 - 북한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다종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포함하여 5대 과업 완수를 위한 군사행동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상황

- 지난해 가을 이후 무기시험 및 위협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경향¹
 - 과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ICBM 시험발사를 비롯하여 확전 초래의 위험성을 내재한 고강도 도발은 가급적 자제
 - 그러나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한미연합훈련이 기간 핵전력을 중심으로 한 맞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ICBM 시험발사도 불사

-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벌이는 무력행동에 ‘훈련’이라는 표현을 붙이기 시작했으며 단순 테스트 성격의 도발이 아닌 목표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훈련의 형태로 진행
 - “훈련”이란 단어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한정하여 진행된 북한의 군사도발에 적용되며 단순 시험 발사 또한 훈련으로 지칭
 - 연합훈련 기간 김정은은 국방 분야 지도에 집중하며 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역량과 핵무기 통제권 한이 부각되는 경향

1 엄밀히 말한다면 훈련(exercise)과 연습(training)에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글에서는 훈련과 연습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여 “훈련”으로 지칭. 다만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연습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

- 본 전략보고는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을 살펴보고 특징 분석을 시도
 - 북한이 유독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확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므로 면밀한 분석 필요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행태 분석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다만 북한의 변화는 2022년 하반기부터 포착되었기 때문에 본 글의 분석 내용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유지될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

II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특징

1. 연합훈련 기간 비례적 군사 대응의 강화

-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특히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
 - 위기 고조 가능성을 우려하여 연합훈련 기간은 피하여 무력시위를 벌였던 북한은 지난해 9월 이후 연합훈련 기간에 다종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정면대결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
 - 북한은 『노동신문』 등에 한미연합훈련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동 기간에 자신들이 벌인 무력도발을 전쟁억제력을 증강하고 한국과 미국에 군사적 경고를 보내기 위한 행위로 정당화³

〈표 1〉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군사도발⁴

기간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군사도발
2022.9.23.- 2022.10.8.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널드레이건호 회항(9.23.) ■ 한미연합해상훈련(9.26.-9.29.) ■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9.30.) ■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10.6.) ■ 한미연합기동훈련(10.7.-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핵탄도미사일 발사훈련(9.25.) ■ 전술핵탄도미사일 발사훈련(9.28.) ■ 전술핵탄도미사일 발사훈련(9.29., 10.1.) ■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훈련(10.4.) ■ 전술탄도미사일명중타격 훈련(10.6.) ■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10.9.)
2022.10.31.- 2022.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10.31.-11.5.)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군사작전(11.2.-11.5.)⁷

3 『노동신문』, 2022년 10월 10일.

4 비공개된 무력도발을 제외하고 북한 언론에 보도된 명칭으로 표기.

5 한은 이 기간에 있었던 자신들의 군사도발을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으로 통칭. Ibid.

6 비질런트 스톰의 정식 영문명은 ‘Operation Vigilant Storm’으로 북한이 특별히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작전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해당 군사훈련의 대응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도 북한은 자주 쓰는 ‘drill(훈련)’ 대신 ‘operation(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 “Report of General Staff of KPA on Its Military Operations Corresponding to U.S.-South Korea Combined Air Drill,” KCNA, November 7, 2022.

7 북한은 총참모부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례적으로 훈련이 아닌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드러냄.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진행에 대한 총참모부 보도,” 『노동신문』, 2022년 11월 6일. 북한은 해당 기간 동안 탄도미사일 25발, 포병사격 180여 발, 화성-17형 1발, 탄도미사일 2발, 화성-5/6형 3발, 화성-11형 2발, 600mm 초대형방사포 2발을 발사하고 군용기 180여개(북한 주장 500여개)를 항적하는 등 높은 수위의 압박 전개.

기간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군사도발
2023.2.1.- 2023.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공중훈련(2.1.-2.3.) ■ 육군11기동사단 공병대·美 스트라이커 여단 연합훈련(2.21.-2.22.) ■ 육군 북진여단美 스트라이커 여단 연합훈련(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15형 발사훈련(2.18.) ■ 방사포 사격 훈련(2.20.) ■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2.23.)
2023.3.9.- 202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한미연합 쌍룡훈련(3.20.-4.3.) ■ 2023 자유의 방패(FS)(3.13.-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습격훈련(3.9.) ■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훈련(3.12.) ■ 미사일 시범사격 훈련(3.14.) ■ 화성-17형 발사 훈련(3.16.) ■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3.18-19.) ■ 중요무기시험 및 발사훈련(해일 및 화살 1, 화살 2)(3.21.-3.23.) ■ 전술탄도미사일 시범사격훈련(3.27.)
2023.5.25.-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5.25.-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5.31.)⁸ ■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6.15.)⁹
2023.8.21.-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을지자유방패(UFS) (8.21.-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리경-1호 2차 발사(8.24.) ■ 연합공격편대 군훈련(8.30)¹⁰

* 출처: 필자 작성.

2. 군사도발의 “훈련”화(化)

-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자신들이 벌이는 군사도발에 한정하여 “훈련”으로 지칭하기 시작(〈표 1〉 참조)
 -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매체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 제목에는 미사일 “시험발사”, “시험타격” 등의 표현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훈련”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
 - ※ “탄도미사일발사훈련(2022.9.25., 2022.9.28.),”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2022.10.4., 2022.10.9.),” “전술탄도미사일명중훈련(2022.10.6.),”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2022.10.9.),”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격타격훈련(2022.10.6., 2022.10.8.),”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2023.3.9.),”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2023.3.18.)” 등

8 2023년 5월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해 말과 같은 일대일의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5월 31일 시험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로 대응하려 했으나 발사체의 엔진 고장으로 궤도 안착에 실패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 『조선중앙통신』, 2023년 5월 30일.

9 해당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 언론 보도는 생략.

10 화성-11형 2발 발사.

-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무력행동이 무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성격의 도발’에서 ‘목표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훈련’의 형태로 격화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¹¹
-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벌인 군사도발에는 단순 시험 발사마저 “훈련”으로 지칭하는 반면 한미연합훈련과 무관한 시기에 벌인 도발은 “훈련” 표현 생략¹²
 - 북한은 같은 종류의 미사일일지라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진행되는 시험발사에 한정하여 “발사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연합훈련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시험발사”로 지칭(〈표 2〉 참조)

〈표 2〉 한미연합훈련 기간 시험발사에 대한 표현 차이

일시	내용	김정은 참관 여부	한미연합훈련 진행 여부	북한 언론 보도 내용
2022.11.18.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없음	■ “시험발사” 진행 ¹³
2023.3.16.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을지프리덤실드	■ “발사훈련” 진행 ¹⁴
2023.4.13.	화성-18형 시험발사	참관	없음	■ “시험발사” 진행 ¹⁵

* 출처: 필자 작성.

- 이 같은 표현의 변화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맞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무력행동에 나서면서 타격 대상까지 공개
 - 2022년 10월 10일자 『노동신문』은 2022.9.25.-10.9.일까지 7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군사훈련 지도를 보도하면서 남한의 ‘작전지역 내 비행장’(9월 28일)과 ‘주요 군사시설’(10월 6일), ‘주요 항구’(10월 9일) 등을 타격대상으로 공개¹⁶

11 물론 이전에도 한미연합기간에 벌이는 군사도발에 대해 “훈련”이란 명칭을 붙인 적은 있으나 단순한 시험발사마저 훈련으로 지칭한 적은 없었음.

12 한미연합훈련 기간 벌인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발사훈련”이라는 표현 사용.

13 『노동신문』, 2022년 11월 19일.

14 『노동신문』, 2023년 3월 17일.

15 조선중앙통신은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포-18을 발사한 후 김정은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지도하였다고 발표.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14일.

16 『노동신문』, 2022년 10월 10일.

- 북한은 또한 2022.11.2.-11.5.일까지 총참모부가 진행한 군사작전에서 ‘적들의 공군기지’를, 2023년 3월 9일에 있었던 화력습격훈련에서는 ‘적작전비행장’을 타격대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¹⁷
- 훈련이 실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밀도 있게 전개되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

3. 김정은의 전면적 등장과 위기의식 조장

- 북한은 훈련 과정에서 김정은의 구체적인 훈련 지도, 판정 검열 등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그의 군사적 역량과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각
 -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실시된 거의 모든 군사도발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
 - 김정은의 지도하 훈련 진행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핵무력과 관련한 군사지휘구조의 최정점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판단
- 군사도발 현장에 김정은의 잦은 출현은 그의 굳건한 통치력을 과시하는 한편 내부 결집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경제난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체제 결속을 유도
 - 최고지도자의 군사도발 현장 지휘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핵무력에 대한 김정은의 특권적 지휘권한을 과시하여 인민들의 충성심 고취

17 『조선중앙통신』, 2022년 11월 7일; 『조선중앙통신』, 2023년 3월 10일.

III 북한의 대응 강화 의도와 시사점

1. 핵무력 정책법의 실전 적용

-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고강도의 맞대응 훈련은 ‘핵무력 정책법’(2022.9.8.)에 따라 공세적 핵태세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¹⁸
 -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통과하고 공세적 핵태세로의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핵능력은 이를 구현하기에 역부족¹⁹
 - 북한은 새로운 법령 발표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맞대응 도발을 통해 공세적 핵태세와 핵능력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기 시작
-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핵무력 정책법 발표 이후 맞대응 훈련을 지휘한 김정은을 오로지 “당 총비서이자 공화국 국무위원장”만으로 소개
 - 북한 매체들은 핵무력 정책법 발표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 김정은의 군사훈련 지도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의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책은 생략
 - ※ 반면 북한 매체들은 핵무력 정책법 발표 이전에는 김정은의 무력도발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책까지 함께 명시(〈표 3〉 참조)²⁰

〈표 3〉 북한 매체의 김정은 직책 소개

언론보도	군사훈련/시험발사 내용	언론보도된 김정은 직책
2023.3.21.	서부전선연합부대 방사포 사격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2022.3.24.	화성-17형 시험발사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2022.4.17.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18 본 보고서에서 “핵무력 정책법”은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의미.

19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는 학자마다 조금씩 분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복 중심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포함하면서 공세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20 2022년 3월 23일 북한은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진행하면서 “당총비서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 의해 시험발사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주장.

언론보도	군사훈련/시험발사 내용	언론보도된 김정은 직책
2022.9.8.	핵무력 정책법 공표 ²¹	
2022.10.10.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2022.11.19.	화성-17형 시험발사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2023.3.20.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2023.7.13.	화성-18형 시험발사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2023.8.21.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당총비서, 국무위원장

* 출처: 필자 작성.

- 핵무력 정책법 3조가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권한이 오로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한 만큼, 국무위원장의 절대적인 핵통제권한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책을 언론 보도에서 생략한 것으로 추정²²

※ 핵무력 정책법에서 핵지휘통제 권한은 기존에 최고사령관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이전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김정은 유고시 핵무기 사용 권한이 군부에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

※ 2023년 3월 19일, 북한은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당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이인 김정은의 지도 아래 “핵공격 지휘체계의 연습”이 이뤄졌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 경제적 부담 감안, 저비용 고효율 훈련으로의 전환

■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은 군사훈련을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소규모이지만 효율적인 형태로 전환

-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대규모 병력을 동반하는 지상군 훈련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에는 확연한 열세에 있는 상황

※ 과거 북한은 평시 군사력을 각종 포병대회, ‘땅크병’ 경기대회, 특수부대 타격대회 및 대규모 화력 시위 등을 통해 점검하였으나 현재는 실시하지 않는 상태²³

21 2022년 4월 17일부터 9월 25일 전까지 수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으나 김정은 참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을뿐더러 미사일 도발 사실 자체가 북한 매체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기도 했음.

22 핵무력 정책법 이전에 존재했던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의 4조에 따르면 핵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권한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에게 있었음. 최고사령관과 국무위원장 모두 김정은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정책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핵지휘통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김정은 유고시 군에게 핵무기 통제 권한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

23 북한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하여 실시한 대응군사작전에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포병 사격 및 항공기 기동과 같은 재래식 대응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최초 발사하여 긴장 수위 고조.

- 재래식 무기보다 폭발력이 월등히 큰 핵무력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행하여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훈련에 들이는 비용을 절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또한 북한은 핵무기 위주의 훈련으로 핵사용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 △미국 전략자산의 동해 진입 방해 등의 의도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
- 다만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발표 이후부터 그해 말까지 북한이 보여 준 최고수위의 맞대응 훈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
 - 법령 발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와 강도는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전과 비교하여 더 심해진 것이 사실이나 2023년에는 법 제정 직후와 같은 빈도와 강도의 군사도발은 별이지 않는 상황
 - ※ 2023년 10월 9-10일 한미일 해양차단 및 대적훈련, 10월 22일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과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등 연이은 연합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맞대응 성격의 군사도발을 일시 중단
 - 북한이 모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여 맞대응 훈련을 실행하는 데 심리적·물질적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다른 대형 도발로 대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추정
 - 때로는 전술핵무기나 ICBM이 아닌 정찰위성 발사 시도 등으로 맞대응 훈련을 대체한 점으로 볼 때 향후에도 추가 정찰위성 발사시행이나 핵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 배제 불가
 - ※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를 하루 앞둔 2023년 5월 30일,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 성명을 발표하여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주장²⁴

3. 한미연합훈련의 쟁점화 및 군사협력 가속화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을 통해 강력한 투쟁 의지, 대미·대남 억제력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쟁점화하는 효과 기대 가능
 -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

24 『조선중앙통신』, 2023년 5월 30일. 리병철은 성명을 통해 국군과 미군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5.25.-6.15.)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협천만한 군사적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쟁점화하여 신냉전 구도를 공고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미의 입지를 약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
 - ※ 김성 UN주재 북한대사는 9월 26일 UN총회 연설에서 한미가 연초부터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 군사 연습을 연이어 실시했다”며 미국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를 수립하여 “아시아판 나토창설 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
-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로 미루어 볼 때, 한미에 대한 비난 여론을 끌어올리는 한편 미국에 비판적 입장인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가속화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
 - 중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책임을 일정 정도 미국에 돌리면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²⁵
 - 러시아는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러북간 무기협상 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한국이 미국의 선전운동에 가담하여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
 -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한미연합훈련에 돌리는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해상훈련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러북간 안보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 입장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5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2022년 8월 을지자유방패(Ulchi Freedom Shield)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자 미국이 “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역내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하며 우방국들이 한반도 안정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의식한 반응 표출. Chen Qingqing and Liu Xuanzun, “US revives drill with S.Korea, ups efforts to disturb region: ‘flexing muscles shows its adventurism’,” Global Times, August 22,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8/1273604.shtml> (accessed: 2023.10.10.).

IV 향후 전망

-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특별히 ‘훈련’이라는 명칭하에 핵전쟁을 상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각 군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정면대결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
 - 8차 당대회(2021.1.)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표명하고 비례적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경고한 바, 대적투쟁원칙과 압도적 군사력 강화방침을 한미에 재확인시키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군사도발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추정²⁶
-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하고 헌법에 핵무력 고도화를 명문화한 만큼 북한은 앞으로도 공세적 핵태세에 걸맞는 핵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력에 안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적성국에 단호하고 강력한 모습을 과시해야 한다고 믿을 것으로 추정
 - 앞으로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전술핵무기를 중심으로 운영능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
 - 또는 필요한 무기시험 발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거나 정찰위성 발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해군력 강화를 주문한 만큼 신형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예상 가능²⁷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진출 거부를 유도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쉽사리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 필요성과 한미일 군사훈련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압도적 대응원칙을 천명한 상태
 - 2023년 4월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다차원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

26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안킷 판다(Ankit Panda)는 2023년 1월, 북한을 전망하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적 충돌에서 핵무기 사용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사일 발사는 시험발사가 아닌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 Jean Mackenzie, “North Korea: What We Can Expect from Kim Jong-un in 2023,” BBC, January 3, 2023, <https://www.bbc.com/news/world-asia-64123657>.

27 북한은 앞서 2022년 말 개최된 8기 6차 전원회의에서도 대적투쟁원칙과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탄두 생산증가와 다종의 전술핵 개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등을 예고.

-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연합군이 벌이는 연합 훈련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은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 완수 및 식량 공급 등 내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국방 분야에만 투자할 수 없는 상황
 - 모든 종류의 한미연합훈련에 건건이 반응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발사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

- 북한의 주요 군사적 협력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러북협력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다른 핵보유국들에 비해 북한의 핵능력은 다소 뒤쳐져 있는데다 핵무기가 전장에서 쉽게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첨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것으로 예상
 - 핵의 불안정성,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를 해소할 현실적 방안과 재정적·기술적 자원의 부재로 전략적 우방을 통해 군사적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며 러시아가 최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²⁸

- 또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양상을 지켜보면서 하마스의 성공적인 전쟁 수행 요인들에 착안하여 향후 훈련 및 군사작전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픽업트럭, 패러글라이딩 등 단순하고 원시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 아이언돔이 뚫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구식 무기들을 재점검하고 가치를 재확인할 것
 -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무기체계의 취약점 공략 △동시다발적 공격 △재래식 무기와 핵전력의 배합 △민간인 방패막이 등을 맞대응 훈련에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가능

28 Artyom Lukin, "Does Kim's Visit to Russia Signal an End to North Korea's Strategic Solitude?," 38 North, September 26, 2023, <https://www.38north.org/2023/09/does-kims-visit-to-russia-signal-an-end-to-north-koreas-strategic-solitude/> (accessed: 2023.10.1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북한, 한미연합훈련을 정말 위협으로 받아들일까?”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7월 12일.
<https://www.bbc.com/korean/news-62062089>. (검색일: 2023.10.1.).
- 김연철. “휴전 70년과 한미 연합훈련.” 『한겨레』. 2023년 3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84243.html> (검색일: 2023.10.1.).
- 이성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 『이슈브리프』 39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년 10월 20일.
- 정성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23-15. 2023년 4월 21일.
- 정육식. “한미 연합 훈련이 방어적? 북한 없애는 공세적 훈련으로 바뀌었다.” 『프레시안』. 2023년 3월 30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2915402785855> (검색일: 2023.10.1.).

2. 북한문헌

- 『노동신문』. 2019년 7월 26일; 2022년 10월 10일; 2022년 11월 6일; 2023년 3월 17일.
- 『우리민족끼리』. 2022년 4월 17일.
- 『조선신보』. 2022년 7월 11일.
- 『조선중앙통신』. 2022년 11월 7일; 2023년 3월 10일; 2023년 4월 14일; 2023년 5월 30일.
- “Report of General Staff of KPA on Its Military Operations Corresponding to U.S.-South Korea Combined Air Drill,” KCNA, November 7, 2022.

3. 영미문헌

- Chen Qingqing and Liu Xuanzun. “US revives drill with S.Korea, ups efforts to disturb region; ‘flexing muscles shows its adventurism’.” Global Times. August 22,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8/1273604.shtml> (accessed: 2023.10.10.).
- Lukin, Artyom. “Does Kim’s Visit to Russia Signal an End to North Korea’s Strategic

Solitude?” 38 North. September 26, 2023. <https://www.38north.org/2023/09/does-kims-visit-to-russia-signal-an-end-to-north-koreas-strategic-solitude/> (accessed: 2023.10.11.).

Mackenzie, Jean. “North Korea: What We Can Expect from Kim Jong-un in 2023.” BBC. January 3, 2023. <https://www.bbc.com/news/world-asia-64123657> (accessed: 2023.10.10.).

Abstract

The Impact of “the Law on the State Policy on Nuclear Forces” on North Korea’s Response to South Korea–U.S. Joint Exercises

Bomi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Since September 2022, North Korea has been conducting high-intensity asymmetric military drills during South Korea–US joint exercises. These drills, which range from simple weapons tests to targeted and intensive drill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nnouncement of “the Law on the State Policy on Nuclear Forces” on September 8, 2022. North Korea conducts counter-response drills during South Korea–US joint exercises to exhibit its bellicosity and resolve not to back down, signaling its realization of the aggressive nuclear posture enshrined in the law. Through these drills, North Korea not only seeks to augment its practical capabilities, but also to highlight the obstruction of US strategic assets entering the East Sea and the offensive nature of the South Korea–US joint exercises, in the hope of deterring or delaying the joint exercises.

North Korea’s high-intensity provocations are likely to continue during future South Korea–US joint exercises. This is because North Korea has not been officially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and is therefore unlikely to be content with its current military capabilities. Additionally, North Korea’s leaders are likely to continue using military provocations to signal their resolve and strength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s efforts to establish a strategic command, strengthen the Korean-style three-axis system, operate the NCG, and enhance US–Korea cooperation are expected to counter North Korea’s aggressive intention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escalating its provocations in response to perceived threat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s high-intensity provocations could lead to further de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North Korea, Kim Jong Un, tactical nuclear weapons, South Korea-US joint exercise, the Law on the State Policy on Nuclear Forces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NOVEMBER 2023.
No. 230